땅 위의 축복 약속은 당기지 말고 밀쳐내라

(히11:8~22)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땅 위의 축복 약속은 당기지 말고 밀쳐내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마음 안으로 끌어당기지 말고 마음 바깥으로 밀쳐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제목과 연관되어서 생각나는, 재미있다 해야 될지 우습다 해야 될지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말씀 중에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뜻을 담고 있는 얘기인데, 진짜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만들어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언제 한 번 얘기한 거 같아요.
며느리가 애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답답해 가지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이 믿음이 없는 며느리를 억지로 끌고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며느리가 아기를 좀 갖게 해 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이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안수하시면서, 복중에 아기가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마디마디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큰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며느리는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뭐 이런다고 애기가 들어서겠는가, 온갖 과학을 다 동원해서도 들어서지 않은 애기가 이런다고 되겠나' 하고 긴가민가하고 민숭민

숭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열심히 아멘~ 아멘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애기를 갖게 됐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근데 며느리의 배에 애기가 들어선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했던 시어머니의 뱃속으로 애기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다가, 아멘~ 아멘 하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교훈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 애기를 가지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애기를 가져서 지금 아니 집 안에 애기 웃음소리가 나게 해야 될 며느리는 애기를 못 갖고,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애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게다 우스갯소리지요, 무슨 여기에 진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 밤에 잘 때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이 축복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밀쳐내야 됩니다.
밀쳐내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마음이 그걸 붙잡잖아요?
그 축복 약속 때문에 망합니다.
또 축복 약속뿐만이 아니라 축복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쳐내야 됩니다, 마음에서.
밀쳐내지 않으면, 마음이 그 축복에 가 닿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축복이 독이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영어의 gift가 선물인데, 독일어의 gift가 독입니다.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근데 축복으로 주신 gift가 그걸 마음으로 붙잡게 되면, 독이 되어버려

서 나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래 됐어요, 아주 오래 전이지요.
종로 2가에 피아노 악기들 많이 파는 낙원상가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낙원상가가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옆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높이가 보통 아파트의 2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높이의 계단이 옆에 있는데, 피아노 가게들이 그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에 그 낙원상가에서 피아노를 옮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트럭이 와서 피아노를 계단 밑에 내려놓으면, 아저씨들 두 분이서 피아노를 양쪽에서 잡고 우레와 같은 기압 소리를 냅니다.
야~압! 하면서 들고, 들자마자 계단 위를 막~ 옆걸음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저는 완전 놀라버렸어요.
피아노를 옮겨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사하면서.
장정 6~7명이 해도 안 돼요. 전 손가락이 트럭 바닥과 피아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낀 적도 있었거든요? 6~7명이 달라 들어도 안 돼요.
근데 두 분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서.
비결이 뭐냐 하면, 서로 단 한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상대방을 향해서 밀어붙입니다.
이쪽은 저쪽으로, 저쪽은 이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야~압! 하고 땅에서 들리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밀어붙이면서 계단 위를 뛰어올라 가는 거예요.
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을.

여러분! 축복은 피아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성상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한 마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땅 위의 인생에 대해서 구한 것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실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본성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먼저 입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고 싶으신 계획을 얘기하고 싶으셔서 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한테는 안 그러시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내 후사로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중에 참~ 사람이 성실하고 충직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를 물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씨가 돼야 된다, 사라가 낳게 될 너의 자식이 되어야 후사가 될 수 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님이 99세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애기를 낳게 해 주겠다' '하나님 내 나이 99세인데 이스마엘이나 이왕 태어난 아기 좀 잘 자라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끌어당기는 적이 없어요, 뭘 구해 본 적도 없고, 주신 약속을 끌어당겨본 적도 없고.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 조카 롯과 함께 서로 분가해야 될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카 롯에게 한 말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땅이란 건 어떡하든지 롯처럼 둘러보아서 기름지고 물을 대기에 좋은 그런 물댄 동산 같은 곳을 찾아서 선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하면 서하고, 서하면 동하겠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봐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축복이 피아노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성상 참지 못하셔서 축복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계신 그 마음을 따라 얘기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을 단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 누구냐 하면,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에 들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나갑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 대하고 있지만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 게 뭡니까? 풍랑 이는 배 속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십니다.

상대한다는 게 뭐에요? 마음이 가 닿는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이 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마치 시각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루만질 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풍랑에 마음이 가 닿으니까, 풍랑에 가서 풍랑을 마음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차갑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나를 잡아 죽일 거 같고 삼킬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닿고 만져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에요.
근데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가서 마음이 닿고 만져보니까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살기가 등등한 전사에요.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떱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관통되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에 대해서까지도 관통되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새 신랑이 정말 그렇게 예뻐하고 바라던 신부를 얻게 됐으니까,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아서 인생을 향하여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신부를 앉혀놓고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자기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내에 이러이런 일을 할 거야, 아파트를 늘릴 거야, 10

년 내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유치원 나이가 됐을 때, 세계 크루즈 여행을 가게끔 준비할 거야'
근데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빙그레 웃습니다.
신랑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의 핑크빛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귓등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자기와 결혼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서, 마음이 들떠서 미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그 신랑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이런 복을 줄께 저런 복을 줄게' 얘기하는데, 이 땅 위에서 자기에게 복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귓등을 스쳐갑니다.
자기에게 복주시겠다고 들떠서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가 닿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복 약속이 계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축복 약속을 해주는 하나님께 마음이 닿아서, 축복 약속은 상대하지 않고 축복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후손이 바다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문제에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시간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만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의 자아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묘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충동입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해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믿습니다.

야곱이 알고 이삭이 압니다.
근데 그렇게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주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외국인인 자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나그네 됨의 자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됨의 자아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나그네에게 가나안 땅을 내 땅과 내 후손의 땅으로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이라는 건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땅을 많이 주신들, 내가 나그네인데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이고, 이 땅에 대해서 이방인인데 땅을 주신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후손을 주신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후손이 버글버글한 이 땅에서 나는 이방인인데.
쉽게 말하면 모래알처럼 많아질 후손들에 대해서도 나는 이방인이라 이겁니다.
내 후손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이에요, 내 바깥에 있어요.
내가 내 후손들이 갖게 될 땅에 대해서도 나는 나그네에요.

묘한 심리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내 후손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이에요?
내 후손에 대해선 내가 선조이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봉이 아닙니까? 내가 근원인데.
근데 이방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후손이 땅에서 살고 있을 것이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을 후손들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이다, 내가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립니다.
밀쳐내는 거예요.
이 밀쳐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속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 피아노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피아노를 옮기는 아저씨 중에 오른쪽 아저씨가 힘이 달려가지고, 피아노를 본의 아니게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에 깔려버리게 됩니다.
끌어당기면 깔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밀어붙이면 그만한 힘으로 나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밀어붙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밀쳐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힘과 같은 힘으로 밀쳐내지 않으면, 그 축복에 깔려 죽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대,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앞에서 내게 일어날 일을 마음에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거나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밀어붙이시는 그 힘만큼 밀쳐낼 힘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 때부터도 꼭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그네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본향을.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으면, 자기앞수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기껏 찾는다는 게 다른 어떤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본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본향이라는 게 마음을 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을 둔 땅이 어디냐 하면, 삶의 터전이 어디냐 하면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대해서 자기들을 나그네로 취급을 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것 줄게 이것 줄게 이것 줄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마음에.
왜?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 땅에서 뭘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밀쳐나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사건들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하나님의 축복 아니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축복을 붙들어 버리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그네가 돼버립니다.
그게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들릴 때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질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야곱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은 전 생애 동안 이 땅의 축복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알려지고 바로 앞에 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 땅의 축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근데 묘하게 히브리서 6장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그 당시 애굽이면 가장 강한 나라이고 번성한 나라이고 융숭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고 임금인 바로에게 높은 자의 입장에서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마는, 이 땅에서 일어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복이 다 이루어져도 바로만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던 자기가 갖고 싶었던 복의 집산지가 애굽이었고, 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복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갖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 줍니다.
모~든 복이 모여 있는 곳의 왕인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유는, 땅 위의 모든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서 마음이 닿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납치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끝까지 가, 기필코 하나님께 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조상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밀쳐내면서까지, 축복의 약속에 내 마음이 납치당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보여 질 일에 대해서 마음이 가 닿고 그것들의 계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해서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오셔 가지고 팔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 그 복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할 지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적용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혹시라도 주시면, 피아노인줄 알고 하나님이 한쪽에서 내게 밀어붙이시는 그 피아노를, 내 쪽에서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그 같은 힘으로 밀쳐내지 않으면, 피아노가 꼭대기까지 옮겨질 수 없는 것처럼, 축복이 현실로 옮겨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마다 밀쳐내십니다.
밀쳐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쳐내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이 땅에서 얻을 당신의 영광 이 땅에서 얻을 당신의 높은 지위 이 땅에서 얻을 모든 부귀영화와 연관된 일들, 다~ 밀쳐내십니다.
그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런 복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들, 소위 축복들 구약적 의미에서 축복들 그리고 그런 축복에 대한 약속들, 강한 힘으로 밀쳐내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밀어붙이고 밀쳐내면서 피아노를 들고 꼭대기까지 옮기는 아저씨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갖고 계신 복되신 계획들 우리에게 밀어붙이실 때에, 우리 마음으로는 밀쳐내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수행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